

반 만 년 과 75 년

공화국이 걸은 성스러운 75년사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비해보면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75년사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 국가발전의 특진성이 가 마련된 조국청사에 특기할 년대기, 반만년민족사의 모든 속원이 실현된 위대한 년대기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존엄높은 국호는 제

국주의의 강건과 천형으로 어두운 이 행성에서 어디서나 보이고 그 누구나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자주강국의 표대, 정의와 진리의 상징, 진보적인류의 희망으로 되고있다.

고 위협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어떤 강적도 넘보지 못하는 절대적인 초강력을 보유한 최강국으로 되어 지구의 축을 둘러보고있다.

지난 전승 70돐경축 열병평장을 도도히 누벼나간 최경애장군의 힘찬 발걸음에서 세계는 조선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다시 한번 실감할수 있었다.

반만년민족사의 언제 어느때 이처럼 위대한 강국의 인민이 그 명성을 만방에 떨친적이 있었는가.

그렇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특기할 대사변이다.

위대한 번영의 새시대를 떠올리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소리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 로동이 곧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지난날 달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노래에 담아보던 인민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 꿈을 현실로 꽃피우며 회한한 새 거리,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되고있다.

창천거리의 45층살림집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살림집, 려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거쳐 송화거리의 80층살림집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솟구쳐 솟아나고 나래쳐오르는것은 인민의 행복만이 아닌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평범한 근로자들이 꿈을 꾸면 그것이 곧 새 문명, 새 생활로 이어지는 격동의 세월속에 승마바람, 스키 풀어나가는 존엄높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존엄높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하고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이 되고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인인 이렇게 말하였다. 《실지 조선에서 인민은 하늘로 떠날데리운다. 조선에서 인민은 창조의 주인일뿐 아니라 향유의 주인이다. 조선에 가보면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찾아볼수 있는데 그것은 인민이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에서 들을수 있다는것이다. 조선에서 호에도,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의 명칭에도, 인민화공군전과 인민대학습당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물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여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는 나라, 인민의 꿈과 이상이 곧 현실로 되고 인민을 위한 거창

한 사변들과 기적들이 끝없이 태어나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

바로 여기에 반만년민족사에

찬란히 빛나는 공화국의 성스러운 75년사가 가지는 세계적인 의의와 역사적총화가 있는것이

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온 민족사의 대 행운

민족이 령도자를 잘 만나면 복을 누리고 부흥과 번영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호반에 오르게 된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은 숭바른 령도자를 못만남 탓에 사대와 굴종으로 시달려다 끝내 망국의 비운을 들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수난을 강요당하지 않았으면 안되였다.

여기에 한가지 사실자료가 있다. 바다 건너 섬나라오랑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20세기 초 우리 겨레는 백두산천지대의 북쪽끝인 달문주변에 《증덕사》라는 99칸짜리 사찰을 세웠다.

이 사찰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줄 천출위인이 출현하게 해줄것을 기원하여 지지도 않은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드리곤 하던 사찰이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백두산마루나 천지호반에서 집을 짓는데 쓸만한 나무를 마련하자면 수십 리 먼곳에 가야만 하고 천지에 볼수 있는데 그것은 인민이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에서 들을수 있다는것이다. 조선에서 호에도,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의 명칭에도, 인민화공군전과 인민대학습당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물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여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는 나라, 인민의 꿈과 이상이 곧 현실로 되고 인민을 위한 거창

의 구세주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자말로 5천년 민족사의 모든 슬기와 용맹을 모아 지니신 하늘이 내신분이시였다.

그런분이시였기에 력사가 외면한 천대받고 버림받던 인민을 하늘로 떠받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이 땅에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의 나라를 세우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바로 그날부터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장엄한 자기의 새 력사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 땅위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진실을 끝없이 창조하며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었다.

태양의 위엄은 태양만이 계속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신 또 한분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체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거창한 실천으로 이 땅위에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 세계적인 대정치동란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루를 일떠세우시고 공화국을 기어 이 알살하러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중엽에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전면대결전을 련전련승에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였다.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공화국을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떠올리고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라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였다.

하기에 적대국의 정치가들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하신 위인상에 대해 《북조선의 수뇌에서 정치를 주도하는 김정일장군, 김일성주석의 전보를 그대로 체현했다는것이 세계적인 증명이다. 자유세계와 단독으로 맞서는 풀이 대단히 무섭고 강하고 손익이 드센 명장형임이 분명하다.》며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고 진보적인류는 끝없는 매혹과 흥모에 넘쳐 《김정일장군께서 이룩하신 공적은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거두지 못할 대공적이다. 지금까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공적은 국상해야 한 나라, 한계 대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의 공적은 전 인류를 위한 세계적인 공적이다.》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예국념원, 강국념원은 오늘 우리 민족이 모신 또 한분의 만고철세위인이시신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예국념원인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실험과 로고를 다 바치고 계신다.

그이의 현명함 령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세월을 주름잡으며 세계의 초강국으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있다.

중국총공신문 《아시아타임스》는 《김정은령도자는 조선의 5천년 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적영웅, 애국자의 한사람으로 반드시 기록될것이다.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조선에는 바야흐로 황금시대가 도래할것이다.》라고 하였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김정은령도자는 저 하늘에서 지구위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 정치 무대 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 있다.》고 격조높이 전하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가 유구하여 어언 반만년을 헤아리지만 우리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이처럼 온 누리에 펼쳐진적은 없

었다.

에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령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에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국으로 솟구치고 인민의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지상락원으로 전변되는 이경이적인 현실은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반만년민족사앞에, 시대앞에, 세계앞에 깨우치고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야 인민도 위대하고 나라도 천하제일강국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그렇다.

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행운의 나라 조선은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며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라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민족의 존엄과 위용떨친 영광의 75년

존엄, 오늘 이 두 글자는 강대한 우리 민족의 존엄과 같고 세계에 비치는 조선의 얼굴과 같다.

돌이켜보면 민족사의 갈피에는 사대와 의존의 가슴아픈 력사도 새겨져있다.

고구려의 승전고 높이 올리던 민족이건난 이후 사대를 일삼으며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낸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나라의 힘은 점점 쇠약해지고 민족의 존엄은 땅바닥에 떨어지였다.

제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큰 나라에 의존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사대의존을 정책으로 실시하다나니 오늘에는 이 나라 군대가 황궁을 지켜주고 폐일은 또 다른 나라 군대가 황궁을 지켜주다가 궁문을 제때대로 열여제끼고 들어온 사무라이들에 의해 황후가 참살당하는 참변까지 빚어졌으며 나중에는 나라까지 통채로 일제에게 빼앗기는 천하의 국치를 겪어야만 하였다.

그대의 조전은 그저 작았던 나라도 아니었고 그저 짓밟힌 나라도 아니었다. 이 행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 자기의 존엄을 잃어버린 비참한 민족이었다.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은 조전은 령강들의 웃음거리였고 조종의 대상이였다.

오죽하면 한세기전 이 나라의 한 시인이 조선아 너는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왜 남과 같이 굳세지를 못하였느냐고 질투하였겠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 민족은 자기의 주권과 결심에 따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인민으로, 무진막강한 절대적 힘을 가진 초강국의 인민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올라서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에 맞게 세우고 관철해나가며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하는 나라, 령강중심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고 정의와 진리,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자주의 강국이 바로 오늘 국제사회에서 무시할수 없는 발언권을 가진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외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평하였다.

《최근년간 지구를 뒤흔든 조선의 주동적이고 결단성있는 조지들은 이 나라야말로 그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자주적대강 나라라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난관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자주적력량을 신도해나가 있다는것은 리해하기 힘든 신비가 아닐수 없다.》

조선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비결, 자주강국으로서 세계의 정치호를 주도해나가는 그

신비한 힘은 최강의 자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은 위대한 자주정치의 산물이며 이 힘은 오늘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치게 하고있다.

어제날 침략자들에게 짓밟히던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운 75년

공화국이 걸은 75년의 력사는 매 순간순간이, 그 하루하루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온 눈부신 나날들이였다.

수수천년 인민이 바라던 꿈과 리상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착취없고 압박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이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인민은 어느때나 수난의 대명사였다.

한갓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노예의 처지에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빼앗기는것을 속명으로 간주해야만 했던 불쌍한 수난자들이였다.

착취제금이 아무때나 밟고다닐수 있었던 땅이였다.

하기에 20세기초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조선을 돌아보고 간 유럽의 한 작가는 지계를 진 조선소년의 구슬픈 모습을 담은 조각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조선사람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하

늘이 되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존엄높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하고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이 되고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있다.

남들은 기차를 타고 달릴 때 초신과 지계밖에 내놓을것이 없었던 인민이 전후 재더미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떠올렸고 남들이 수백년동안 걸어온 길을 단 14년동안에 께지르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속도전의 위력으로 20리날바다우에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웠다.

오늘은 또 건국이래 찾아볼수 없었던 파괴적인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치며



○ 잊 지 못 할 공 화 국 창 건 의 나 날 에 ○

국호에 깃든 이야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공화국창건을 준비하시면서 나라의 국호를 제정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라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각방으로 시비질하였다. 그자들은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느니 하면서 국호를 《인민공화국》이라고 달든

가 아니던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이름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지으면 되지

무엇때문에 남을 쳐다보겠는가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부 사람들이 국호에서 《인민》을 빼자든가 《민주주의》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 단계의 임무를 옹기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무시한데서 나오는 매우 그릇된 주장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나라의 국호를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당면 임무와 근본목적에 다같이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국가가 전하는 사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창작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부르시어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조국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창작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명곡의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되였다. 주체 36(1947)년 6월의 어느날 국가의 시청회가 진행되였다.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 아레를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다시 한번 부르면 선율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 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공진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오늘도 공화국인민은 국가를 들으며 가사의 주제와 내용, 작곡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깊이 새겨안고있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룬

주체37(1948)년 봄 어느날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국기의 국장도안을 놓고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는 국기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뭉친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기백을 상징하는 표시와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별을 국기와 국장안에 그려넣는것을 놓치지 말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심의를 하루 앞둔 날 국기와 국장도안을 책상우에 펴놓으시고 밤깊도록 사색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장안에 그려넣을 용광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데 용광로대신 전기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것이 어떻가고 김정숙녀사께 물으시였다.

녀사께서는 이에 적극 찬성하시면서 발전소를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국장도안에 연필로 수공발전소의 모형을 표시하시였다.

이렇게 창작된 국장과 국기도안은 심의성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되였다.

본사기자